

중국의 인도양 진출과 인도의 대응 분석: 인도-인도양 연안국 간의 안보·전략적 관계를 중심으로*

권재범**

| 목 차 |

I. 서론	IV. 인도와 인도양 지역 연안국가들 간의 안보·전략적 관계 강화
II. 지역 내 위협적 강대국의 등장과 2선 국가(secondary state)의 전략	V. 결론
III. 중국의 인도양 진출과 인도의 인식	

| 논문요약 |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인도양으로까지 군사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인도양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 강화를 통해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인도양 지역의 리더를 자처해온 인도에게 있어 중국의 인도양 진출은 인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안보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도양 지역에서의 안보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감에 따라 인도는 어떻게 대응을 해오고 있는가? 본 연구는 중국의 인도양 진출 상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와 인도양 지역 연안국가들 간의 안보·전략적 관계 강화의 요인, 현황 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인도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인도가 적극적인 대중국 견제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그 일환으로써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등 인도양 지역 내 이웃 국가들과의 국방·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략적 관계를 다변화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 본 연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힙니다. 익명의 심사자 두 분의 건설적이고 유익한 논평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기에 반영하지 못한 지적사항들은 향후 연구를 통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 계약교수

• 주제어: 세력균형, 중국-인도 관계, 견제전략, 강대국 경쟁, 남아시아 국제관계

I. 서론

2010년대 이후 국제정치질서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바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다.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경쟁뿐만이 아니라 두 국가는 몇 년 전부터 무역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보다 최근에는 5G 네트워크 등과 같은 4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패권경쟁을 심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국가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을 야기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 지역적 수준에서도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일본과는 동중국해 지역에서의 영토분쟁이나 UN 상임이사국 문제, 역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고, 호주와는 경제 문제와 인권 문제 등으로 상호 보복정책을 추진하며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라 할 수 있는 인도 역시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두 국가는 히말라야 지역의 국경문제를 놓고 충돌을 벌인 바, 중국과 인도 관계 역시 과거와 비교할 때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도에게 있어 국경문제만큼이나 중국에 대한 우려, 위협인식을 높이고 있는 것이 바로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인도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진출이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남중국해를 넘어 인도양으로까지 군사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인도양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 강화를 통해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Initiative) 전략을 통해 인도양 지역 소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 지역에 항구시설 등을 건설하며 해군활동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이다. 즉, 2010년대 이후 중국의 인도양 지역으로의 진출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행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반면, 전

통적으로 인도양 지역의 리더를 자처해왔고, 인도양 지역을 자국의 앞마당으로 인식해온 인도에게 있어 중국의 인도양 진출은 이 지역에서 인도의 국제적 지위를 훼손하고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안보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들어 부쩍 강화된 중국의 인도양 진출이 인도의 안보에 심각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리더국을 자처해오던 인도의 영향력 역시 상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도양 지역에서의 안보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감에 따라 인도는 어떻게 대응을 해오고 있는가? 중국이 인도양 지역 연안국가들과 도서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군 함정들을 인도양에 파견하고 있는데 대해 인도는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가?1) 본 연구는 인도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인도가 적극적인 대중국 견제전략(anti-China balancing)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그 일환으로써 방글라데시(Bangladesh)와 스리랑카(Sri Lanka) 등과 같은 인도양 지역 내 이웃 국가들과의 전략적·안보적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전략적 관계를 다변화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과 인도는 아시아 지역에서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이다. 두 국가는 세계 1, 2위의 인구 대국이며 다수의 핵탄두와 높은 수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2)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아시아 지역에서 손에 꼽히는 국가들이기에 두 국가의 관계는 지역 안보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았다. 두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과 인도 관계가 지속적으로 갈등적이거나 심지어는 군사

1) 여기서 인도양은 서쪽의 동아프리카 연안과 중동 지역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쪽의 말라카 해협 사이의 바다를 경계로 하고 있으며, 인도양 연안 국가는 인도양을 따라 잇닿아 있는 국가들을 뜻한다. 인도양 연안 국가에는 동아프리카 해안 국가들(모잠비크, 탄자니아, 소말리아 등), 아라비아 반도 국가(예멘, 오만 등), 남아시아-동남아시아 해안국(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도서국가(몰디브, 스리랑카, 세이셸, 모리셔스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 현재 중국은 약 320기의 핵탄두를, 인도는 1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20), "SIPRI Yearbook 2020," <https://www.sipri.org/yearbook/2020>. (2021년 2월 1일 검색)

적 분쟁을 겪는다면, 그 여파는 단순히 두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로 과급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국내외에는 중국-인도 관계는 물론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인도의 전략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김석수 2018; 김태현 2013; Boon 2016; Hornat 2016; Joshi & Mukherjee 2019; Khan 2016; Lim 2020; Rehman 2009; Smith 2013).³⁾ 이 연구들은 주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남아시아와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 간의 힘의 분포 상태(distribution of power)가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 지역에서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현상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대해 안보적 위협을 느끼는 인도는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균형전략을 추진하는 바, 특히 티벳 지역과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Brewster 2010; Khan 2017; Naidu & Yasuyuki 2019; Pant & Rej 2018; Scott 2012; Vijayalakshmi 2017).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부상에 인도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이 인도와 타국 간의 군사안보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그 대상이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과 같은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지역의 강대국들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이들 국가들의 군사력이나 정치적 위상, 그리고 국제정치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한다면 기존 연구들이 인도와 이들 국가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연구대상의 제한으로 인해 인도가 추진 중인 또 다른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관계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노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국가들, 즉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등 인도양 지역에 위치한 이웃 소국(small state)들과 인도 간에 진행 중인 안보적·전략적 관계의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3) 국외에서 중국과 인도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극히 일부만 인용했음을 밝힌다. 다양한 연구들이 두 국가 간의 영토분쟁 문제, 난민문제, 물 분쟁 문제 등에서의 양국의 접근 방식을 다루고 있으며, 인도의 동남아 전략이나 중국-파키스탄 관계 등 상대방을 견제하는 중국과 인도의 정책을 다룬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인도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해 인도의 대응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신현실주의(neorealism)의 관점, 특히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의 관점에서 지역 패권을 둘러싸고 위협적인 경쟁국가가 등장할 경우 지역 강대국이 자국의 안보와 이익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취하게 되는지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인도양 지역에 진출하는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와 함께 인도양 지역에서의 리더를 차지해오던 인도가 중국의 점증하는 역내 영향력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는지 논의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초반부에 인도양 지역에서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 이웃한 소국들과의 전략적·안보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어떠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뒤이어 2010년대 이후 인도와 인도양 지역의 두 이웃 국가들(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간의 전략적 관계가 심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며 끝을 맺는다.

II. 지역 내 위협적 강대국의 등장과 2선 국가(secondary state)의 전략

한 국가(A)가 전통적으로 자신의 ‘영역’ 혹은 ‘세력권’이라고 인식하던 지역 내에서 다른 국가가 부상하여 A의 영향력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혹은 인근의 다른 지역 국가가 A의 지역으로까지 활동반경을 넓히며 A를 위협한다면, A는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 신현실주의자들에 따르면 국제 체제는 각 국가들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중앙권력체가 부재한 무정부상태(anarchy)에 놓여져 있다(Mearsheimer 2001; Waltz 1979). 국가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Mearsheimer 2001, 30-31).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들은 다른 국가로부터 언제든지 공격 받을 수 있다는 불안에 놓여져 있으며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

국 자력구제(self-help)를 할 수밖에 없다(Waltz 1979, 111).

만약 무정부 상태 속에서 강력하고 위협적인 강대국이 등장한다면, 다른 약자들은 필연적으로 그 강대국으로부터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안보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더욱이 A와 B라는 강대국 간의 관계에 있어 B의 힘이 커져 두 국가 사이의 힘의 균형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A의 B에 대한 위협 인식과 안보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공세적 현실주의 학자인 미어샤이며(2001, 32)에 따르면, 강대국들은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낮아 서로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즉, 강대국들은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동기도 가지고 있기에, 이들은 생존이라는 제1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모든 강대국들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계 패권국(global hegemon)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세적 현실주의의 주장이다(Mearsheimer 2001, 40). 하지만 어떠한 강대국이라도 지정학적 요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세계 패권국이 되기란 쉽지 않으며, 따라서 지역 패권국(regional hegemon)의 위치에 오르는 것이 자신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Mearsheimer 2001, 41). 요컨대, 강대국 B는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B가 속한 지역(혹은 대륙)에서의 패권을 추구하는데, 만약 또 다른 강대국 A가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힘을 투사하기 시작한다면 B의 안보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한 지역 안에서 A라는 강력한 경쟁국이 등장한다면 그 지역 내에서 B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되고 외교·안보적 행보 역시 크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절한 견제를 하지 못해 A에게 지역 패권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 지역 내 2선 국가(secondary state)로 전락한 B는 언제나 A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안보적으로 심각히 불안정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B로서는 그 지역에서의 세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A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을 취해야 한다.

신현실주의자들은 강대국 A를 견제하기 위해 B가 취할 수 있는 균형전략(Balancing strategy)에 대해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내적균형

(internal balancing)’ 전략으로 약소국이 자국의 무기개발 및 군 전력 현대화 등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Waltz 1979, 168).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균형(external balancing)’ 전략으로써 약소국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타국가와의 동맹을 형성해 위협국가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다(Walt 1987, 18). 위협적인 국가와의 힘의 균형을 다시 ‘균형상태’로 맞추기 위해 약소국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은 물론 문제는 있는데, 내적균형의 경우 경제력과 기술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약소국이 군사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하더라도 강대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따라잡기가 힘들다는 점이, 외적균형의 경우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더라도 공약의 이행 문제나 책임부담 문제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Mearsheimer 2001, 156-157).

비교적 최근에는 ‘연성균형(soft balancing)’이 균형전략의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기존 신현실주의자들이 제시한 내적균형과 외적균형의 문제점으로 인해 전략적 파트너십이나 안보 이니셔티브 등과 같은 연성균형 전략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McDougall 2012; Pape 2005; Paul 2005). 연성균형이란 위협국가의 힘이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제한적인 외교적 연합(limited diplomatic coalition)을 형성하거나 우호조약(entente)을 체결함으로써 추진된다(Paul 2005, 47). 즉, 약소국 혹은 2선 국가들이 연합하여 위협국가에 직접적인 군사적 견제는 취하지 않지만 비군사적 수단을 중심으로 위협적인 강대국의 행동을 지연시키거나 방해, 심지어는 약화시키려는 행위가 연성균형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Pape 2005, 10). 이는 동맹으로 대표되는 외적균형의 느슨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으며,⁴⁾ 위협국가의 군사력과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의 안보적·군사적·전략적 이니셔티브나 정치·외교적 결속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McDougall 2012, 4). 따라서 연성균형 전략은 동맹 수준의 군사안보적 결합에는 미치지 않지만 다양한 안보적·전략적 이슈나 공통의 안보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주로 추진된다고

4) 일부 학자들은 연성균형전략이 향후 약소국들 간에 더 강제적인 협력, 혹은 동맹과 같은 외적균형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인정한다. 위협적인 강대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지속되거나 안보환경이 더 악화될 경우 연성균형전략 아래 맺어진 전략적 파트너십이나 다양한 외교·안보적 이니셔티브들이 동맹으로 격상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Pape 2005, 10; Paul 2005, 47).

볼 수 있다. 다른 국가들과의 합동 군사훈련이나 다양한 안보·국방 분야에서 이니셔티브 추진, 교류 확대 등을 통해 2선 국가는 이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심화하고 위협적인 강대국의 힘과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위협적인 강대국이 지역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상대라면 지역 내외의 다른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이웃하고 있는 약소국들과의 전략적 관계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현재 인도양 지역으로의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는 공세적 현실주의에 따르면 당연한 논리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역시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라는 지역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점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그 지역 내 다른 강대국들의 생존에 위협을 끼친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남아시아 및 인도양 지역 너머까지 진출 지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리더 역할을 자처해온 인도로써는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자국 안보와 국가 이익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인도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부상은 중국과 인도 간 힘의 균형상태를 심각하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관계에서도 그 힘의 균형상태를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도양 연안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이 지역에 대한 인도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인도양에서의 중국 해군의 활동 증가 역시 인도의 행보에 거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인도에게 불리한 안보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인도는 인도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과 군사력에 대한 균형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지역 리더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인도는 균형전략의 한 요소로써 다른 국가들과의 안보·전략적 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인도가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과 같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강대국들과 함께 ‘4자 안보 대화(쿼드,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 참여해오고 있거나, 개별적으로 이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이러한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2010년대 초반 이후 인도의 이웃 국가들에 대한 안보·전략적 관계 강화 노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Ⅲ. 중국의 인도양 진출과 인도의 인식

2000년대 이후 중국은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 너머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각 지역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원조 등을 바탕으로 행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그리고 남아시아 및 인도양 지역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적극적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게 있어 인도양 지역은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Krupakar 2017, 209). 무엇보다도 자국 에너지 소비량의 대부분을 중동 등에서 수입하는 중국으로서는 인도양 지역의 해양 수송로 안전이 에너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의 상선 및 유조선의 안전을 방해할 만한 적대국 혹은 해적들의 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에너지 수송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략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Khurana 2008, 16). 또한 인도양 지역 국가들의 잠재적 시장가치 역시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다른 국가들의 영향력을 견제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중국은 과거 10-20여 년 동안 강력한 경제적 자원 등을 기반으로 인도양 연안 국가들(Indian Ocean Littoral States)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인프라 건설에 지원 및 참여하면서 인도양 지역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해군 역시 2000년대 말부터 인도양 지역으로 전투함 및 잠수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지속적으로 파견하며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행보를 활발히 전개하는 중이다. 그리고 인도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자연스럽게 인도 정부의 안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지역 리더국으로서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1. 중국의 인도양 지역 항구 건설과 인도의 우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인도양 진출은 크게 두 가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인도양 연안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이고, 두 번째는 인도양에서의 중국 해군 활동의 지속적 증가이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국은 인도의 이웃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양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항구나 공항, 도로 등과 같은 다양한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인도는 육지쪽으로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해양쪽으로는 몰디브와 스리랑카와 이웃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들 국가들을 포함하는 거대한 경제회랑을 건설 중이다(Baruah 2018, 3). 2010년대 이후로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며 인도양 연안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 전략의 중요 축으로 불리는 ‘해양 실크로드(Maritime Silk Road)’는 남중국해와 인도양, 지중해를 연결하는 거대 축으로써 인도양은 해양 실크로드 부활의 핵심지역으로 평가받는다(Anwar 2020, 170; Chitty et al. 2018, 8). 그리고 해양 실크로드 전략 아래 인도양 연안 국가들과의 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협력 대상국도 세이셸과 모리셔스 등과 같은 작은 도서 국가들, 아프리카 동부 해안 국가들로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써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건설에 약 600억 달러를 투입하는 한편 2019년에는 내륙국인 네팔이 중국의 주요 항구 네 곳에 대한 사용권 부여함과 동시에 네팔에 대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Anwar 2020, 165). 동시에 중국은 몰디브에 외교부 청사 및 박물관, 주거지 건설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는 한편 몰티브 최초로 섬들을 잇는 교각 건설 프로젝트에도 재정적, 기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대형인프라 건설을 위해 몰디브의 한 무인도(Feydhoo Finolhu)를 50여 년간 임대하기도 했다(Kumar 2016, 155-156). 또한 인도양 서부와 접한 동부아프리카 국가에는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투자액의 1/4을 투입하며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Ghosh 2020, 147).

최근 인도양 연안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인프라 건설 지원 중에 항구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중국 회사들은 BRI 전략 아래 34개국 42개 항구에 대한 건설 프로젝트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에는 남아시아의 항구 역시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Xinhuanet 2020/01/18). 특히 중국

은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인도와 인접한 국가들의 주요 항구들의 건설 및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실크로드의 부활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Ghosh 2020, 147; Khurana 2008, 11-14).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키스탄 과다르(Gwadar) 심해항(deep-water port)에 대한 중국의 지원 및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과다르 항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참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은 미얀마 차욱퓨(Kyaukpyu) 항만시설 개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1월에는 과거 몇 년 동안 협상만 진행되어던 차욱퓨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중국과 미얀마 사이의 최종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다(*Xinhua* 2020/01/18). 또한 중국은 2000년대 이후 방글라데시 치타공(Chittagong) 컨테이너 항구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이 항구의 군사적, 상업적 활용성을 높이고 있으며, 스리랑카 함반토타(Hambantota)항과 콜롬보(Colombo)항 건설을 위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은 인도양 지역 항구들에 대한 운영권을 다년간 확보하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인도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파키스탄 과다르 항만시설에 대한 50년간의 운영권을 확보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스리랑카의 빗 상황 문제를 바탕으로 함반토타 항구를 99년간 임차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이 인도양 지역 항구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참여하면서 항구들에 대한 운영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중국은 인도양 지역에서의 해군 군수지원항 확보라는 전략적 이득을 확보하기도 했다.⁵⁾ 결국 이러한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통해 중국은 인도양 연안국가들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인도양 지역에서의 해양교통로 안전 확보 및 해군의 활동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인도의 우려와 안보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 자원을 활용해 인도양 연안국들과의 관계를 심

5)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4), "China's Navy Extends Its Combat Reach to the Indian Ocean," <https://www.uscc.gov/research/chinas-navy-extends-its-combat-reach-indian-ocean>. (2021년 1월 23일 검색)

화하고 지역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인도는 이 지역에서의 지위 및 영향력 하락, 그리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인도는 인도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접근, 특히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Baruah 2018, 3; Chakma 2019, 184). 전통적으로 인도는 남아시아 및 인도양을 자국의 앞마당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는 중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이 지역에서의 인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의견이 인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Boon 2016, 797-798; Chakma 2019, 184; Chitty et al. 2018, 8). 즉, 중국이 막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는 인도양의 연안국가들을 지원하고 인프라 건설 등에 협력함으로써 과거부터 누려왔던 이 지역에 대한 인도의 독점적 영향력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Chitty et al. 2018, 9). 심지어 파키스탄(서쪽), 네팔(북쪽), 방글라데시(동쪽), 스리랑카(남쪽)와의 경제적 관계 강화가 네 방향에서 인도를 포위하려는 중국의 시도라는 인식 역시 존재한다(Boon 2016, 797-798). 인도 매체 역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일대일로와 관련된 타임즈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의 기사 대부분이 일대일로, 특히 해양실크로드 전략을 중국이 인도양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규정하였고, 중국과 인도양 지역 국가들 간의 경제적 협력은 이 지역에서 인도의 잠재적 기회를 빼앗을 수 있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Chitty et al. 2018, 13).

결국 인도양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접근과 영향력 확대 움직임은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인도 간 영향력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등을 통한 인도양으로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이 이 지역에 대한 인도의 영향력의 감소, 그리고 인도의 지역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Baruah 2018, 3; Frankel 2011, 9). 또한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인도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의 안보·전략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상황에 따라 인도는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황과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도의 우려를 낳고 있다(Baruah 2018, 13).

한편, 인도양 연안국가들의 항구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 및 참여는 인도의 대중 위협인식을 강화시키는 또 다른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인도양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항구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경제적·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항구들은 앞으로 비군사적인 목적을 가진, 민간용으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Nagao 2018, 221). 하지만 인도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주장에 대한 불신이 높으며, 더 나아가 항구건설 프로젝트가 인도를 봉쇄하는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도 인도양 연안국가를 따라 항구건설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이 인도를 전략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항구들을 활용해 이 해역에서의 중국해군 활동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인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우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건설 참여,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 파키스탄 과다르 항 개발 등을 통해 인도양 지역에서 항구건설 및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Boon 2016, 797; Krupakar 2017, 201). 여기서 진주목걸이 전략이란 중국이 자국의 경제적·군사적 영향력과 힘을 더 멀리 투사하기 위해 인도양 연안국들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 경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 국가들을 연결해보면 인도를 포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따라서 인도의 입장에서는 이 전략이 인도를 봉쇄하기 위한 중국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Boon 2016, 798; Brewster 2015, 51). 실제로 인도의 한 싱크탱크(National Maritime Foundation)의 원장은 중국의 인도양 진출에 대해 “중국이 정말로 인도를 포위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인도는 현재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며, 중국은 인도를 전략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Wall Street Journal* 2020/09/25). 다시 말해, 인도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이 진주목걸이 전략 아래 인도양 지역 국가들의 항구건설을 지원하고 항구에 대한 접근·사용권을 확보하는 이유는 이를 바탕으로 인도양에서의 해군 활동 지원(군수지원 및 보급 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인도에 대한 전략적 봉쇄망을 형성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Boon 2016, 798; Brewster 2015, 51; Chitty et al. 2018, 8).

항구 네트워크를 통한 대인도 포위 이외에도 이들 항구들은 향후 인도양에서의 중국해군 활동의 전초기지로도 전용될 수 있기에 인도는 안보적 위협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프리카 동부 해안의 케냐와 동남아시아 서쪽 지역의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인도양을 아우르는 지역에 최소한 여덟 곳의 심해항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건설 중이며, 이 항구들은 향후 민군겸용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Krupakar 2017, 201).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파키스탄 과다르 항과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한 바, 이에 대해 인도는 이들 항구가 상업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향후 중국에 의해 해군전용의 군사적 용도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심을 표명하고 있다(Kaura & Rani 2020, 13). 실제로 인도 전 국방장관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은 “함반토타 항구에서 중국이 스스로의 행동을 일반적(상업적) 항만 행위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언급하며 인도양 지역 항구를 통한 중국의 활동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The Hindu* 2018/02/01). 과다르 항구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인도양에서 미국이나 인도 등 다른 국가 해군의 군사적 활동을 감시하기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더욱이 이 항구에는 신호정보(signal intelligence) 수집 시설이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잠수함의 정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이 과다르 항구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에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중국 해군의 정기적인 접근이라는 군사적 목적도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다(Khurana 2008, 11-12; Pant 2011, 110). 이와 함께 미얀마 차욱푸 항구 역시 현재까지는 영구적 군사기지 설치에 대한 정황은 없으나 언제든지 인도양에서의 중국 해군 임무 수행을 위한 병참수송 및 군수지원 등과 같은 군사적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인도의 우려를 사고 있다(Khurana 2008, 12).

결국 인도는 중국의 지원 아래 건설되고 있는 인도양 지역 항구들이 상업용·비군사용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중국의 항구 건설 노력 이면에는 군사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이 항구들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중국에 의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으며, 때문에 중국이 향후

이 항구들을 통해 해군 전력을 인도양 지역으로 배치, 파견할 것이라고 우려한다(Nagao 2018, 221). 인도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인도양 연안국가 및 도서국가에 건설된 항구가 중국의 두 번째 해외 해군기지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⁶⁾ 실제로 파키스탄 과다르 항과 오만의 살랄라(Salalah) 항, 그리고 세이셸 등 세 곳은 현존하는 지부티(Djibouti) 해군기지과 함께 향후 중국의 영구적 해군기지가 될 수 있는 유력 후보군으로 주목받고 있다(Krupakar 2017, 231-214). 앞으로 중국이 인도양 연안국가의 항구에 더 많은 시설을 건설하고, 일부 기지들을 군사용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이들 항구들은 인도양 지역에서의 중국 해군 활동을 위한 핵심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중국해군은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전략적 이점을 확보하고 군사적 보폭을 확대할 수 있으며, 결국 인도의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 중국 해군의 인도양 진출과 인도의 위협인식

두 번째로 중국은 인도양 지역에서 자국 해군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미의회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에서 발표한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해군의 인도양 진출은 1985년 처음 시작되었지만 2010년 이후 그 횟수와 파견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⁷⁾ 이러한 중국해군의 인도양 진출 증가는 이 지역에서의 해군훈련과 기타 임무 수행을 위한 함대 파견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를 넘어 인도양 지역으로까지 해군 훈련의 지역적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2014년에는 세 척의 전투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Surface Action Group)가

6) 중국은 이미 2017년부터 아프리카 지부티에 최초의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 사용 중에 있다.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건설한 주 목적은 동아프리카 지역과 아덴만(Aden Bay) 부근에서의 해양교통로 안전 확보 및 해적 퇴치임무로 알려져 있으나 이미 이곳에는 중국 최신 잠수함과 전투함, 해병대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인도양 입구에 위치한 만큼 인도의 우려를 사고 있다.

7)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4), “China’s Navy Extends Its Combat Reach to the Indian Ocean,” <https://www.uscc.gov/research/chinas-navy-extends-its-combat-reach-indian-ocean>. (2021년 1월 23일 검색)

23일간 남중국해와 인도양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5일간 이 기동함대는 인도양 동부 지역에서 대잠훈련, 전자전, 대해적 퇴치 훈련, 원양에서의 군수보급 훈련 등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⁸⁾ 이외에도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의 틀 속에서 러시아 및 기타 회원국들과 인도양 지역에서의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러시아와 이란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인도양 서부 등지에서 실시하기도 했다(CNN 2019/12/27).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중국 해군은 다양한 목적으로 자국 전투함과 잠수함들의 인도양 파견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해군의 활동이 과거와 비교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지만, 2010년 이후 인도양에서의 중국 해군의 활동을 의심하는 다수의 보고가 나오고 있다(Nagao 2018, 221). 일례로 2012년에는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 잠수함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한 보고만 최소 22건이 있었고, 최초로 해양정보수집선이 신호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인도양에 파견된 바 있었다. 2014년에는 두 척의 중국 잠수함과 한 척의 군수보급함이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에 정박했고 2015년에는 중국 잠수함 한 척이 파키스탄 카라치(Karachi) 항구에 기항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인도양 해역에서 인도 해군이 최소 일곱 척의 중국 잠수함을 추적했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인도양 지역에서의 중국 해군 활동은 2018년 들어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8년에는 몰디브에서 정치적 소요가 발생했는데, 당시 중국은 몰디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인도 등 외부 국가의 개입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군 함대를 파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때 몰디브 인근으로 파견된 중국 해군함대는 지상공격 순항미사일(Land Attack Cruise Missile)과 대잠/대공전 수행능력을 갖춘 최신 미사일 장착 구축함(Luyang-II급) 두 척과 스텔스 기능과 대잠 능력을 장착한 프리깃함(Jiangkai-II급) 한 척, 그리고 수륙양용함 한 척 등 상당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다(*The Hindu* 2018/02/20). 한편, 같은 시기에 중국 해군의

8)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4), "China's Navy Extends Its Combat Reach to the Indian Ocean," <https://www.uscc.gov/research/chinas-navy-extends-its-combat-reach-indian-ocean>. (2021년 1월 23일 검색)

또 다른 두 개의 함대가 인도양 지역에 파견되어 동시에 활동 중이었음이 보도되었다. 동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대해적 퇴치 임무 수행을 완료한 중국해군의 한 개 함대가 인도양 남부 지역에 진입하던 중이었고, 동시에 그 임무를 이어받은 또 다른 한 개 함대가 인도양 서부 해역에서 활동 중이었던 것이다. 결국 2018년에는 총 11척으로 구성된 중국 해군의 세 개 함대가 동시에 인도양의 동, 서, 남쪽에서 활동한 유례 없는 상황을 조성하기도 했다(*The Hindu* 2018/02/20).

이렇게 인도양 지역을 무대로 중국 해군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도의 안보에 대한 우려 역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2013년 인도 국방부는 현재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 해군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특히 중국 해군 잠수함의 활동이 자주 보고되고 있는 상황은 인도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The Diplomat* 2016/04/08). 특히 앞서 소개한 2014년 중국해군 기동함대의 인도양 지역에서의 훈련은 인도 안보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인도양 지역에서 비교적 긴 기간 동안 고도의 훈련들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미 중국 해군이 인도양지역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전투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 만큼 인도해군에게 있어서는 중국 해군이 향후 군사·전략적으로도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⁹⁾ 또한 2014년 9월 두 척의 중국해군 잠수함이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에 기항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5년 5월 한 척의 잠수함이 파키스탄 카라치 항구에 기항한 사건은 더이상 인도양에서 중국의 해군 활동이 비밀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인도양에서 인도해군의 활동을 언제든지 방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Krupakar 2017, 210). 이러한 중국해군의 활동은 현재 중국이 인도양을 ‘인도의 바다’로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해역에서 인도 해군의 전략적 활동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인도 안보에 대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은 인도양 지역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파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임무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유사시 인도의 해양수송로 이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으며, 평시에도 미국

9)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4), “China’s Navy Extends Its Combat Reach to the Indian Ocean,” <https://www.uscc.gov/research/chinas-navy-extends-its-combat-reach-indian-ocean>. (2021년 1월 23일 검색)

이나 인도의 해군 활동을 감시하여 인도에 대한 전략적 압박을 효율적으로 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Boon 2016, 798). 최근 기자회견에서 카람비르 썩(Karambir Singh) 인도 해군참모총장은 인도양에서는 언제나 7-8척의 중국 해군 함정이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중국 해군이 인도의 허가 없이 인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러한 중국 해군의 활동은 인도 해군이 마주한 심각한 위협 중 하나임을 은연중에 밝히기도 했다(*Financial Express* 2020/12/03). 요컨대 중국의 인도양 진출은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접근, 그리고 군사적 활동 확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인도 국방부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인도양 연안국가에 대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인도양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활동의 보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역내 힘의 균형상태가 중국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 안보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Joshi & Mukherjee 2019, 31). 이러한 인도의 우려와 불안은 인도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군사활동의 강화가 지속됨에 따라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다양한 국제정치적 이슈에 대해 과거보다 더 공세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도양 지역에서 인도의 대중 위협인식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Joshi & Mukherjee 2019, 31).

IV. 인도와 인도양 지역 연안국가들 간의 안보·전략적 관계 강화

인도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인도는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약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인식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국 군사력의 강화와 다른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인도는 2000년대 말 이후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과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군사적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 인도는 인도양의 이웃 국가들과도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이 아닌, 전략적·안보적 측면에서도 관계 강화 노력을 추진 중이다. 특히 중국이 인도양 지역으로의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인도의 정부, 군사 관계자는 미국, 일본만큼이나 이웃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일례로 2015년 모디정부에서 외교부장관을 역임했던 수브라마냐 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장관은 “과거 몇 년 동안 인도는 인도양이 언제나 자국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사고만 했을 뿐 인도양 지역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다양한 지정학적 문제와 관련해 인도양 지역 국가에 접근할 것임”을 언급했다(*Wall Street Journal* 2020/09/25). 또한 2000년대 인도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던 아룬 프라카시(Arun Parkash) 제독도 인도양 지역에서의 중국 해군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도해군과 주변 국가들 간의 해양안보 협력 증진을 통해 중국이 인도양 지역에서 취약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보내야 함을 주장하기도 했다(*Wall Street Journal* 2020/09/25). 인도 정부는 중국에 대한 우려와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인도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특히 2014년 모디(Modi) 총리의 취임 이후 ‘이웃국가 우선 정책(Neighborhood First Policy)’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이웃한 작은 국가들과의 전략적·안보적 관계 증진을 촉진시키고 있다(김찬완 2018). 이러한 이웃국가들과의 전략적·안보적 관계 강화는 군 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군사교류, 전략·안보 분야에서의 합의 및 이니셔티브 체결, 군사적 원조, 그리고 합동군사훈련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1. 방글라데시

인도의 이웃 국가들 중 최근 안보 분야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관계 증진을 보여준 국가는 바로 방글라데시라고 평가할 수 있다(Kaura & Rani 2020, 18). 특히 인도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MoD)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의 국방협력 수준은 매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¹⁰⁾ 이러한 높은 협력수준을 보여주는 중요 지표 중 하나로는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표 1> 참고).

<표 1> 인도-방글라데시 국방·안보분야 주요 고위급 회담¹¹⁾

년도	내용	비고
2012	합동자문위원회(Joint Consultative Commission) 개최	처음으로 양국 외교부 장관 참석
2015	양국 정상회담(인도 모디총리의 방글라데시 방문)	국경분쟁합의 체결
2016. 12	인도국방장관(Raksha Manti)의 방글라데시 방문, 인도-방글라데시 국방장관 회담	최초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
2017. 4	양국 정상회담(인도 모디총리 - 방글라데시 하시나 총리)	
2017	인도 육·해·공군 참모총장 방글라데시 방문	사상 최초로 인도 3군 참모총장들이 한 해에 방글라데시 방문
2018	양국 간 연례 국방회담(Defence Dialogue) 개최	최초의 양국 국방회담
2018	양국 3군 참모총장 연례회담 개최(7, 8, 11월)	양국 3군 참모총장 간 최초의 연례회담

양국 간 고위급 중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들자면 2012년 양국 합동자문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양국 외교부장관이 참석하여 국방과 안보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의 공조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연례 개최에도 성공하게 된다. 또한 양국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은 2015년 모디 총리의 방글라데시 방문 당시 체결된 국경분쟁합의 체결을 들 수 있다. 이후 2016년에는 처음으로 양국 간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었고, 2018에는 국방부 고위급 관료들 간의 연례 국방회담과 3군 참모총장들 간의 연례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되기도 했다.

이렇게 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국방·안보 분야에서 합의와 이니셔티브 등 양자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다. 2016년 최초의 인도-방글라데시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간

10) Ministry of Defence (MoD) of India (2017), "Annual Report," <https://www.mod.gov.in/documents/annual-report>. (2021년 1월 22일 검색)

11) 다음을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함. Ministry of Defence (MoD) of India (2017-2019), "Annual Report," <https://www.mod.gov.in/documents/annual-report>. (2021년 1월 22일 검색)

훈련/교육 분야, 방위산업, 육군 간 군사교류 협력이 합의됨으로써 두 나라 간 국방협력 제도화에 중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¹²⁾ 이후 2017년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가 인도에 방문했을 당시 양국은 원자력 분야 첨단기술과 우주, 정보기술,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하는 36개 문서에 서명하였는데, 특히 이때 양국 정상은 국방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 on Defence Cooperation Framework)에 서명함으로써 국방회담(Defence Dialogue) 및 3군 참모총장 회담 연례화에 합의하기도 했다.¹³⁾ 또한 같은 해 인도의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이 모두 방글라데시에 방문하여 양국 군사대학 및 국방대학 간의 합동 MoU를 체결함으로써 인도-방글라데시 간 군사학교 간의 협력이 공식화되었고, 2018년 연례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군사교육 교류와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되기도 했다.¹⁴⁾ 국방·안보분야에서의 합의와 이니셔티브 등은 양국 간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의 국방협력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인도는 방글라데시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방글라데시의 대중국 군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2017년 이후 인도는 방글라데시에 대한 군사교육 제공, 군사장비 하드웨어 판매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두 건의 방위협정(Defence Pact)이 체결되어 기술과 군수 분야에서의 지원 확대 등이 합의되었다(*The Diplomat* 2017/04/08; *The Economic Times* 2018/07/12). 또한 2017년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와 모디 총리 간의 회담 직후 인도는 방글라데시에 대한 45억 달러 규모의 신용한도대출(Line of Credit: LOC)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방글라데시의 군사장비 구입을 위한 5억 달러의 LOC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Kaura & Rani 2020, 19). 그리고 1년 후인 2018년에는 5억 달러의 LOC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는데, 인도가 남아시아 국가들 중 무기 및 군사장비 구입을 위한 LOC 지원을 추진한 것은 방글라데시가 최초이기도 했다

12) Ministry of Defence (MoD) of India (2017), "Annual Report," <https://www.mod.gov.in/documents/annual-report>. (2021년 1월 22일 검색)

13) Ministry of Defence (MoD) of India (2018), "Annual Report," <https://www.mod.gov.in/documents/annual-report>. (2021년 1월 22일 검색)

14) Ministry of Defence (MoD) of India (2019), "Annual Report," <https://www.mod.gov.in/documents/annual-report>. (2021년 1월 22일 검색)

(*Business World* 2020/11/20). 이와 함께 같은 해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군사장비 및 무기의 공동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인도는 방글라데시에 선박건조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군함 건조에 있어서도 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Business World* 2020/11/20).

2010년대 이후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안보협력 관계 강화는 양자 합동군사훈련의 시작 및 확대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먼저 양국 육군 간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Exercise SAMPRITI)이 2012년 처음 시작되었고, 2020년에는 아홉 번째 훈련이 실시된 바 있다. 특히 해가 거듭될수록 규모가 확대되고 훈련 내용 역시 더 고도화되면서 양국 육군은 상호 간 조직구조 및 전투준비태세 등에 대한 이해 제고, 그리고 상호 신뢰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The Economic Times* 2020/02/03). 2019년에는 양국 최초로 인도 해군과 방글라데시 해군 간의 합동 해군 훈련(Exercise Bongosagar)을 실시하며 해양에서의 다양한 임무와 훈련 등을 수행함으로써 양국 해군 간 군사정보처리 상호교환능력(interoperability) 및 합동임무수행능력 강화를 도모했다(*The Daily Guardian* 2020/09/03). 특히 2020년의 두 번째 훈련에서는 인도 해군이 자체 생산한 대잠수함전 목적의 초계함(INS Kiltan)과 유도미사일장착이 장착된 초계함(INS Khukri) 등 최신 전함이 참가하여 방글라데시 해군과 함께 해양경계, 해적퇴치 작전 등과 같은 비전통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수상전, 대잠수함 전투 임무 훈련도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양국 간 합동 해군훈련의 주요 목적에는 해양경계나 해적퇴치, 해양구조 등에서의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두 국가 모두에게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적대국 해군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수행능력 제고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양국 해군 및 해안 경비대 간에도 2018년부터 합동경비훈련이 시작되었다. 주로 벵갈만(Bay of Bengal)에서 실시되는 이 훈련은 이후 성공적으로 연례화되었으며, 해양지역에서의 불법적 행위 근절을 위해 양국 해군 및 해양경비대 간의 공조 능력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The Daily Guardian* 2020/09/03). 이렇듯 2010년대 들어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합동 육군훈련 및 해군훈련, 합동경비훈련을 각각 시작하였으며, 이를 연례화시킴으로써 괄목할 만한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방글라데시와의 국방·안보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인도의 노력은 인도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움직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인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방글라데시와의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자국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공고화시키는 한편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2017년 중국이 방글라데시에 잠수함 두 척을 최소 가격으로 인도했을 때 인도 해군참모총장 수닐 란바(Sunil Lanba) 제독이 바로 방글라데시에 방문하여 양국 참모총장 간 회담을 가졌으며, 당시 국방장관 마노하르 파리카르(Manohar Parrikar) 역시 방글라데시를 방문해 방글라데시 해군에 잠수함 교육 제공을 제안한 바 있다(*The Diplomat* 2018/06/29). 이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해 인도가 적극적으로 견제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고, 중국과의 혹시 모를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방글라데시를 자국의 영향권에 포섭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스리랑카

인도에게 있어 스리랑카는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Kaura & Rani 2020, 12). 무엇보다도 인도 남동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는 인도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 결과 인도로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스리랑카와의 안보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인도는 2010년대 이후 스리랑카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방·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을 전례 없이 활성화시키고 있다(<표 2> 참고). 특히 2010년 이후 양국 육해공군 참모회담이 처음으로 시작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처음으로 두 국가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며 인도와 스리랑카는 안보 이슈와 관련된 논의를 보다 고위급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인도와 스리랑카 간에 고위급 회담이 더욱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2010년대부터 몇 가지 중요한 안보분야에 대한 합의들이 도출되고 있다. 우선 2011년 인도와 스리랑카는 몰디브를 포함해 3자 해양안보다자협력 이니셔티브를

창설했고 세 국가 간 해양영역에서의 인식능력(Maritime Domain Awareness), 합동 해군능력 배양, 해양안보 분야에서의 공조 강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에 합의하였다.¹⁵⁾ 2012년 양국 총리회담에서 두 국가는 고위급 장교들을 주축으로 한 연간 국방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며 다양한 국방협력 이니셔티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The Diplomat* 2019/07/12). 2018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인도-스리랑카 해양경비대 간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되는 한편 해양안보와 관련해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을 실천에 옮기기로 합의되기도 했다.¹⁶⁾

<표 2> 인도-스리랑카 국방·안보분야 주요 고위급 회담¹⁷⁾

년도	내용	비고
2010	양국 공군참모회담(A.F. to A.F. Staff Talks)	최초 개최
2011	양국 해군참모회담(Navy to Navy Staff Talks)	최초 개최, 이후 연례화
2012	양국 육군참모회담(Army to Army Staff Talks)	최초 개최
2013	인도-스리랑카 연례 국방장관 회담	최초의 양국 국방장관회담
2014	양국 연례국방회담 개최	최초 개최
2015	양국 해양경비대참모회담(Coast Guard Staff Talks)	최초 개최
2015	양국 3군 참모총장 간 회담 개최	최초로 한해 양국 3군 참모총장 회담이 모두 개최
2015	인도 모디 총리-스리랑카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신임 대통령(Maithripala Sirisena) 간 정상회담. 스리랑카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지가 인도였으며, 같은 해 모디 총리 답방이 이루어짐.	모디총리의 답방은 최초의 스리랑카 단독방문
2020	인도 국가안보보좌관 스리랑카 방문. 안보문제에 관한 다양한 안건 논의	

15) Indian Navy (2016), "Ensuring Secure Seas: Indian Maritime Security Strategy," https://indiannavy.nic.in/sites/default/files/Indian_Maritime_Security_Strategy_Document_25Jan16.pdf. (2021년 1월 21일 검색)

16) Ministry of Defence (MoD) of India (2018), "Annual Report," <https://www.mod.gov.in/documents/annual-report>. (2021년 1월 22일 검색)

17) 다음을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함. Ministry of Defence (MoD) of India (2017-2019), "Annual Report," <https://www.mod.gov.in/documents/annual-report>. (2021년 1월 22일 검색)

두 국가는 2010년대 개최된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안보분야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2015년 모디 총리와 스리랑카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 간의 회담에서는 네 개의 협약이 서명되었는데, 여기에 안보협력과 민간 원자력 개발 협력도 포함되어 있었다(유경완 2016, 86). 또한 2020년 회담에서는 양국 군대 간 상호방문 확대, 해양안보협력 강화, 스리랑카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합의안이 마련되어 다시 한번 두 국가 간의 안보관계 증진을 촉진시키게 되었다(*The Economic Times* 2020/09/28).

한편 인도는 스리랑카에게도 국방분야에서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인도 모디총리와 스리랑카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는 스리랑카에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LOC 제공을 약속했는데, 여기에는 5천만 달러 규모의 방위장비 구입을 목적으로 한 LOC가 포함되어 있었다(*Times of India* 2019/11/30). 이는 남아시아국가 중 방글라데시에 이어 두 번째 사례였으며, 스리랑카로서는 처음으로 방위장비 구입을 위한 LOC 수혜였다. 이와 함께 인도는 스리랑카에 대한 최대의 군사교육을 제공 국가이기도 하다. 2011년과 2013년 사이 약 1,700명의 스리랑카 군장교들이 인도에서 교육을 받은 바 있고, 스리랑카 해군 장교 중에는 약 80%가 인도를 교육 장소로 선택하기도 했다(*The Diplomat* 2019/07/12). 현재 인도군은 외국군 장교의 교육 할당에 있어 스리랑카 군장교에게만 약 50%를 할당하고 있는데, 2020년 인도-스리랑카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인도는 스리랑카 육·해·공군에 군사장비 및 하드웨어 제공계획과 함께 상호 군사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밝히며, 스리랑카에 대한 군사교육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The Economic Times* 2020/09/28).

최근에는 군사교육뿐만 아니라 군사장비 제공을 통해서도 인도의 대스리랑카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스리랑카 내전 시기 때에도 인도는 스리랑카에 무기를 제공해왔었지만, 최근에는 무기 제공의 중심이 해양안보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일례로 2014년 스리랑카는 한 척당 7,400만 달러의 신형 해안경비선 두 척을 인도에 주문했고,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한 척씩 스리랑카에 인도된 바 있다. 이는 스리랑카 최초로 신형 해안경비선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한 사례이며, 동시에 스리랑카 역사에 있어 최대급 선박을 운용하게 된 사례로 꼽히고 있다(Kaura & Rani 2020). 이와 함께 인도 해안경

비대는 스리랑카 해안경비대에 훈련과 정찰을 목적으로 한 해안경비선(ICGS Varuna)를 제공하기도 했는데(*The Diplomat* 2019/07/12), 결국 이 시기 인도의 스리랑카에 대한 선박 인도는 해양안보 분야에 있어 두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보여주는 중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 간 합동군사훈련 역시 2010년대 인도-스리랑카 안보협력 증진의 중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인도와 스리랑카는 2005년 합동 해군훈련(Exercise SLINEX)을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는데, 이때는 일회성의 훈련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 두 국가는 이 훈련을 격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정기적 훈련으로 실시되고 있다.¹⁸⁾ 특히 해가 거듭될수록 이 훈련의 규모와 투입 무기의 질, 훈련 내용의 정교함이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8년 훈련에서는 처음으로 스리랑카 공군이 참가해 양국 해·공군 합동 훈련으로의 격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The Diplomat* 2019/07/12).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0년 SLINEX 훈련에서 인도는 대잠 전투능력뿐만 아니라 대공능력까지 갖춘 두 척의 최신예 구축함을 참가시키고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대잠수함 전투훈련을 실시하며, 훈련의 관심사가 단순한 해양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적대국 잠수함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에 있음을 보여주었다(*The Diplomat* 2020/10/21).

뿐만 아니라 두 국가는 2013년 처음으로 육군 합동훈련(Exercise Mitra Shakti)을 실시하고 이후 매년 훈련을 개최하고 있다(*The Diplomat* 2019/07/12). 특히 양국 육군 간의 합동훈련을 해마다 2주 동안 개최함으로써 인도와 스리랑카 육군은 양국 간 상호통신 및 정찰, 무기 기술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상호 신뢰 확보에도 중요한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기존 인도와 몰디브 해안경비대 간에 진행되던 양자훈련에 스리랑카가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면서 삼자 합동훈련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인도 해안경비대는 몰디브, 스리랑카 해안경비대들과 공동으로 인도양 연안 지역의 안보증진을 위한 협력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The Diplomat* 2019/07/12). 이렇게 인도와 스리랑카는 2010년대 들어 합동 훈련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 훈련들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과 교류, 공조 상호에

18) Ministry of Defence (MoD) of India (2016), "Annual Report," <https://www.mod.gov.in/documents/annual-report>. (2021년 1월 22일 검색)

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요컨대 인도가 스리랑카와의 안보관계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에는 중국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0년대 초반 군사분야에서도 중국과 스리랑카 간의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움직임이 보이자 인도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한 바 있다. 이듬해인 2011년 11월 당시 인도 군사령관 비크람 썩(Bikram Singh) 장군이 스리랑카에 급파되어 1억 달러 규모의 비살상용 군장비 판매 체결에 성공을 한 사례는 인도가 중국-스리랑카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유경완 2016, 89). 이와 함께 2020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인도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야심 확대에 반대하고 인도양 지역과 벵골만에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한 바(*The Economic Times* 2020/09/28), 인도의 대스리랑카 접근에는 중국에 대한 우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남아시아 국제관계 전문가 로이 차우두리(Roy-Chaudhury) 박사는 2010년대 이후 훈련확대 및 군사교류 강화 등을 통해 인도와 스리랑카는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들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두 국가 간의 군사협력 수준은 현재 중국-스리랑카 협력 수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The Diplomat* 2019/07/12). 인도와 스리랑카의 관계는 스리랑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따라 부침이 심했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2010년대 들어 꾸준히 스리랑카와의 안보적·전략적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스리랑카와의 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가고 있다.

19) 일례로 2010년대 중반 스리랑카 마힌다 라자팍세(Mahinda Rajapaksa) 정부는 중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스리랑카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2014년에는 중국 해군 잠수함 두 척의 함반토타 항 기항을 환영하기도 했다. 반대로 이 시기 인도와 스리랑카 관계는 경색 국면에 놓여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신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중국의 인도양 진출과 그로 인한 인도의 위협인식,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도가 추진 중인 대중국 견제 전략을 분석하였다. 인도양 지역에서의 중국-인도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이들 두 강대국들과 인도양 지역 국가들 간의 안보·전략적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인도양 지역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인도에게는 이웃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증진시킬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작은 국가들이지만 지리적으로 인도와 가깝고 인도양 지역의 주요 해양교통로의 길목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해양 교통로 안전 확보와 해군력 투사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Anwar 2020, 171-172). 만약 이 국가들이 중국의 안보·전략적 세력권 안에 편입될 경우 인도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힘의 균형은 중국쪽으로 급속도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인도로써는 해양영역에서의 이익들을 침해받고, 이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며, 중국으로부터 봉쇄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 및 진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는 자국 군사력 강화 등과 같은 다른 노력들과 함께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Ghosh 2020, 148).

중국이 일대일로, 군사력 강화를 통해 인도양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인도는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과 같은 역외 강대국들과 쿼드 협력 등 안보 관계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이웃한 인도양 지역 소국들과의 전략적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인도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안보분야에서의 양자 고위급 회담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협력과 이니셔티브가 도출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인도는 방글라데시 및 스리랑카의 각급 군대와 공동 훈련을 실시·확대해 나가며 상호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인도의 행보에는 결국 신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도의 전통적 영역이라고 인식되던 인도양에 중국이 진출함에 따라 야기된 인도의

위협 인식이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인도는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 인식과 우려를 가지게 되는 바, 인도는 이웃한 국가들인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의 안보협력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인도의 대중 견제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인도는 전략적 파트너의 대상을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과 같은 역외 강대국뿐만 아니라 국한시키지 않고, 이웃한 인도양 연안국가와의 협력관계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인도와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역내외 강대국 간의 관계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도의 이웃국가들과 인도 간의 전략적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동시에 본 연구는 인도의 관점과 입장을 중심으로 이들 관계를 다루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즉,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가 중국과 인도라는 두 지역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이유로 인도와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는지, 혹은 이들 국가가 왜 인도의 노력에 호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절히 다루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인도양 지역 국가들이 행정 전략을 추진하는 동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인도양 지역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근 인도와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게 된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김석수 (2018). “인도와 중국의 영역권, 연결성 그리고 세력권 경쟁.” 『세계지역연구 논총』. 제36집. 2호, pp. 91-112.
- 김찬완 (2018). “모디정부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남아시아연구』. 제24집. 2호, pp. 29-50.
- 김태현 (2013). “중국의 부상과 인도.” 『전략연구』. 제20집. 59호, pp. 133-165.
- 유경완 (2016). “스리랑카의 對 인도 및 중국 정책변화 연구.” 『남아시아연구』. 제22집. 2호, pp. 61-101.
- Anwar, A. (2020). “South Asia and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Vuving, A. L. (ed.). *Hindsight, Insight, Foresight: Thinking About Security in the Indo-Pacific*. Honolulu: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pp. 161-178.
- Boon, H. T. (2016). “The Hedging Prong in India’s Evolving China Strateg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5. No. 101, pp. 792-804.
- Brewster, D. (2010). “The India-Japan Security Relationship: An Enduring Security Partnership?” *Asian Security*. Vol. 6. No. 2, pp. 95-120.
- Brewster, D. (2015). “An Indian Ocean Dilemma: Sino-Indian Rivalry and China’s Strategic Vulnerability in the Indian Ocean.” *Journal of the Indian Ocean Region*. Vol. 11. No. 1, pp. 48-59.
- Chakma, B. (2019). “The BRI and India’s Neighbourhood.” *Strategic Analysis*. Vol. 43. No. 3, pp. 183-186.
- Chitty, N., D. Ahlawat, M. Li and D. Gopal (2018). “The Chines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Indian Ocean region: Sentiment towards Economic Prosperity and Security Implications.” *The Indian Journal of Politics*. Vol. 52. No. 1-2, pp. 1-20.
- Frankel, F. R. (2011). “The Breakout of China-India Strategic Rivalry in Asia and the Indian Oc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4. No. 2, pp. 1-17.
- Ghosh, P. (2020). “India’s Indian Ocean Region Strategy.” *Journal of Indo-Pacific Affairs*. Fall, pp. 146-150.
- Hornat, J. (2016). “The Power Triangle in the Indian Ocean: China, India and the

- United States.”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9. No. 2, pp. 425-443.
- Joshi, Y. and A. Mukherjee (2019). “From Denial to Punishment: the Security Dilemma and Changes in India’s Military Strategy towards China.” *Asian Security*. Vol. 15. No. 1, pp. 25-43.
- Kaura, V. and M. Rani (2020). “India’s Neighbourhood Policy During 2014-2019: Political Context and Policy Outcomes.” *Ind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66. No. 1, pp. 10-27.
- Khan, M. (2017). “Growing India-US Strategic Cooperation.” *Strategic Studies*. Vol. 37. No. 4, pp. 97-117.
- Khan, Z. (2016). “China - India Growing Strides for Competing Strategies and Possibility of Conflict in the Asia - Pacific Region.” *Pacific Focus*. Vol. 31. No. 2, pp. 232-253.
- Khurana, G. S. (2008). “China’s ‘String of Pearls’ in the Indian Ocean and Its Security Implications.” *Strategic Analysis*. Vol. 32. No. 1, pp. 1-39.
- Krupakar, J. (2017). “China’s Naval Base (s) in the Indian Ocean-Signs of a Maritime Grand Strategy?” *Strategic Analysis*. Vol. 41. No. 3, pp. 207-222.
- Kumar, A. (2016). “India-Maldives Relations: Is the Rough Patch Over?” *Indian Foreign Affairs Journal*. Vol. 11. No. 2, pp. 153-167.
- Lim, Y. H. (2020). “China’s Rising Naval Ambitions in the Indian Ocean: Aligning Ends, Ways and Means.” *Asian Security*. Vol. 16. No. 3, pp. 396-412.
- McDougall, D. (2012). “Responses to ‘Rising China’ in the East Asian Region: Soft Balancing with Accommod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1. No. 73, pp. 1-17.
- Mearsheimer, J.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Company.
- Nagao, S. (2018). “China in Japan-India Security Ties.” Panda, J. P. and T. Basu (ed.). *China-India-Japan in the Indo-Pacific*. New Delhi, India: Pentagon Press, pp. 216-229.
- Naidu, G. V. C. and I. Yasuyuki (2019). “India - Japan Defence Ties: Building a Strategic Partnership.” *Strategic Analysis*. Vol. 43. No. 1, pp. 13-27.
- Pant, H. V. (2011). “India Comes to Terms with a Rising China.” Keough, J., T. Tanner and A. J. Tellis (ed.). *Strategic Asia 2011-12*.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pp. 101-128.

- Pant, H. V. and A. Rej (2018). "Is India Ready for the Indo-Pacific?"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1. No. 2, pp. 47-61.
- Pape, R. A. (2005). "Soft Balancing against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pp. 7-45.
- Paul, T. V. (2005). "Soft Balancing in the Age of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pp. 46-71.
- Rehman, I. (2009). "Keeping the Dragon at Bay: India's Counter-containment of China in Asia." *Asian Security*. Vol. 5. No. 2, pp. 114-143.
- Scott, D. (2012). "The "Indo-Pacific"—New Regional Formulations and New Maritime Frameworks for US-India Strategic Convergence." *Asia-Pacific Review*. Vol. 19. No. 2, pp. 85-109.
- Smith, J. M. (2013). *Cold Peace: China-India Rivalry in the Twenty-First Century*. Lanham: Lexington Books.
- Vijayalakshmi, K. P. (2017). "India - US Strategic Partnership: Shifting American Perspectives on Engaging India." *International Studies*. Vol. 54. No. 1-4, pp. 42-61.
- Walt, S. (1987).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Waltz, K.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2. 기타

- Baruah, D. M. (2018). "India's Answer to the Belt and Road: A Road Map for South Asia." Carnegie Foundation Report.
- "14-Day Joint Military Exercise by Indian, Bangladesh Armies Begin." *The Economic Times*. February 3, 2020.
- "China Deploys Warships in Indian Ocean." *The Hindu*. February 20, 2018.
- "China, Russia and Iran Hold Joint Naval Drills in Gulf of Oman." *CNN*. December 27, 2019.
- "Delhi Woos Dhaka." *The Diplomat*. April 8, 2017.
- "Expanding US-Japan-India Cooperation in the Indian Ocean." *The Diplomat*. April 8, 2016.
- "India and Bangladesh Join Hands For Defence Partnership And Co-Production In The Region." *Business World*. November 20, 2020.
- "India and Sri Lanka Complete Bilateral Naval Exercise." *The Diplomat*. October

21. 2020.

“India Announces \$450 Million Line of Credit to Sri Lanka.” *Times of India*. November 30, 2019.

“India-China-Sri Lanka Triangle.” *The Diplomat*. July 12, 2019.

“India Seeks Naval Edge as China Penetrates Indian Ocean.”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24, 2020.

“India to Sign Two Major Defence Deals with Bangladesh.” *The Economic Times*. July 12, 2018.

“India Working on Plan to Offer \$50 Million Line of Credit to Sri Lanka in Defence.” *The Economic Times*. September 28, 2020.

“Kyaukpriu Port to Become Model Project in China-Myanmar BRI Cooperation.” *Xinhuanet*. January 18, 2020.

“Navies of India, Bangladesh to Hold Bilateral Exercise Bongosagar Today.” *The Daily Guardian*. October 3, 2020.

“Navy Alive to Various Threats in Maritime Domain: Admiral Karambir Singh.” *Financial Express*. December 3, 2020.

“Nirmala Wary of China’s Sri Lanka Plans.” *The Hindu*. February 1, 2018.

“The Battle for Bangladesh: India vs. China.” *The Diplomat*. June 29, 2018.

Indian Navy (2016). “Ensuring Secure Seas: Indian Maritime Security Strategy.” https://indiannavy.nic.in/sites/default/files/Indian_Maritime_Security_Strategy_Document_25Jan16.pdf. (2021년 1월 21일 검색)

Ministry of Defence (MoD) of India (2015-2019). “Annual Report.” <https://www.mod.gov.in/documents/annual-report>. (2021년 1월 22일 검색)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20). “SIPRI Yearbook 2020.” <https://www.sipri.org/yearbook/2020>. (2021년 2월 1일 검색)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4). “China’s Navy Extends Its Combat Reach to the Indian Ocean.” <https://www.uscc.gov/research/chinas-navy-extends-its-combat-reach-indian-ocean>. (2021년 1월 23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1년 02월 16일 |

| 논문심사일 : 2021년 02월 26일 |

| 게재확정일 : 2021년 03월 12일 |

| ABSTRACT |

China's Growing Footprints in the Indian Ocean and India's Response:

**Focusing on Security and Defense Ties between India
and Indian Ocean Littoral States**

Jaebeom Kwon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ince the 2000s, China has expanded its military footprints in the Indian Ocean and increased its economic influence in the Indian Ocean littoral states.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India, which has been regarded as a traditional regional leader, China's growing influence has weakened India's position and imposed a threat to India's national security. Under these circumstances, how has India responded? This study reviews how China has attempted to attract small South Asian countries into its economic and strategic orbit as well as strengthened its naval activities there, and how India has dealt with a rising China. The study argues that, facing this unfavorable strategic circumstance, India has actively practiced an anti-China balancing strategy, and specifically, tried to diversify its strategic relations by enhancing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 Key words: Balance of Power, China-India Relations, Balancing Strategy, Great Power Competition, International Relations in South Asia